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영순* · 문희진**

국문요약

본 논문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경험의 의미를 성인학습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학습을 연계하여 이해하고, 통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및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5명을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의 의미는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성과 한국사회 사이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이주 후 변화된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관련 사업에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된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 성인학습,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결론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2021년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133만 2천 명에 이르렀다. 국내 외국인의 수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2021년 기준 1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통계청·법무부, 2021). 2020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7.3%), 재택근무·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지속되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문제의 대안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자조모임은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심리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그리고 자조모임은 개인을 둘러싼 장애나 삶을 파괴하는 공통의 문제를 상호 교류·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하여 자신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자 자발적인 연합체이며(Zastrow, 1990), 특정한 경험, 문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문제와 관심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효과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othman, 2013). 무엇보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공유하고 그들의 내면적 불안과 좌절을 풀어주는 데 자조모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Leon et al., 1984).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의 순기능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옥 외, 2021).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2020년 기준 46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3,959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결혼이주여성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어 진다(박신규,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들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적 자원,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유연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적응해나가고 있다. 더욱이 스스로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선우·윤황,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하여 사회통합 영역에서 선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의 유형에는 학술적 목적으로 형성된 자조모임, 종교적 배경으로 형성된 자조모임, 친목 위주의 자조모임 등이 있다(정성미, 2010). 이러한 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최소화하여 소속감을 확보하게 되고, 심리 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박재규, 2011).

그중에서도 학술 목적으로 형성된 통번역 자조모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번역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재사회화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자조모임 중 하나다.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선우·윤황(2017)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이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적인 사회지지 자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번역 자조모임의 형성과정, 구성원 간 문제해결의 공통욕구, 사

회적 지지 및 기반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그 결과, 통번역 자조모임은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회활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통번역 자조모임 내에서 상호 간 건강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활동 목적을 위한 동향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0)은 친목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과 달리 통번역 자조모임은 구체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모임의 자생력을 불어넣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연대의식 및 사명감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기술적 역량도 발전하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다는 의식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의 특성, 참여경험 및 참여과정을 통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참여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통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서비스 사업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통번역 자조모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과 성인학습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사회·문화 관습의 차이, 언어 장벽, 사회적 편견 등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인학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식 중심 학습과

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로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경험’이라고 한다. 성인들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하게 된다(최향석, 2001). 어떠한 유형의 경험일지라도 경험은 성인학습에 특별한 기능을 하며,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Knowles(1980)는 ‘경험의 저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험을 ‘학습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본다. 그는 “성인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며, 그들은 독특한 일련의 경험을 축적하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면서 경험에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들은 자신을 학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성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 자신을 타인의 학습을 장려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둘째,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작업은 학습 활동의 첫 단계를 이끌어내며,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셋째, 학습과 경험의 실제적인 결합은 성인기의 학습과 아동기의 학습에서 상이하게 이뤄진다. 아동은 경험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활용하지만, 성인들은 경험을 학습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전환하며 재통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경험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낯은 습관, 편견 등을 없애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기영화 외, 2009).

결혼이주여성에게 학습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문화 및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학습경험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 생활 전반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심인선, 2007).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학습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학업 및 학습경험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미숙·이미정, 2015; 원순옥·이화숙, 2015; 김가연, 2021; 석영미, 202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겹겹고시 학습경험을 연구한 서홍란 외(2016)는 학습경험을 이해하고, 학습경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생애사 인터뷰

를 수행하였고, 백은숙·한상길(2017)은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또한, 히로세 준코(2020)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갈등과 문화적응과정을 전환학습적인 접근으로 파악하여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며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석영미(2020)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제약과 구조 속에서 학습을 자원으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학습생에서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학습 지원 및 관리 체계에 대해 제언하였으나, 학습 현장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및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 결혼이주여성과 통번역 자조모임

국제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되었다(이지은 외, 2014). 이후 국내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통역¹⁾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9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각 지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를 파견하고 있다(신윤경, 2018). 통번역지원사 활동이 시작되면서 국제회의의 통역이나 동시통역으로만 인식되었던 통역의 의미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김경희 외, 201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이 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돕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여 한국사회에서의

1) '지역사회 통역'은 해당 지역 사회의 공식 언어에 서툰, 주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언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서비스를 말한다(김경희 외, 2014).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이며,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로 센터별로 1~4개의 언어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한 사회 통합,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통한 언어 형평성 제공, 동일 국가 출신자 간 유대 관계의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등이다(여성가족부, 2016).

2021년 8월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통번역지원사는 208개소에서 29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통번역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양성과정 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 양성과정은 신규 양성교육과 통번역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인력의 업무 이해 및 기본 소양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양성 교육,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센터 지원 등에서 약 43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통번역 지원을 통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조기 적응에 기여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는 2009년에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통번역서비스의 주요 자원이 언어 위계가 낮은 아시아 언어라는 점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열악한 외국인 취업시장에서 보기 드문 사무직으로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통번역지원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직업이기도 하다(김경희·허영숙, 2014). 또한,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전문 직종으로, 한국사회에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잡게 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게 되었다(김태린, 2021).

이에 본 연구는 통번역지원사를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통번역 자조모임

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녀들이 통번역 자조모임 경험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학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학습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등 성인학습 측면에서 경험에 관한 의미를 발견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결혼이민자 통번역 관련 모임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 가족센터에 연구를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2021년 기준 A 가족센터의 통번역 자조모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1> A 가족센터의 통번역 자조모임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 · 결혼이주여성에게 통번역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번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함. 	
모임 기간	· 매년 3월~12월(9개월)	
참여 구성	참여 인원	· 10명
	출신 국적	· 중국(5명), 베트남(4명), 우즈베키스탄(1명)
모임 횟수	· 주 1회(비대면, SNS 단체 대화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서비스 관련 자원봉사 및 취업 연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교재 및 응시료 지원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홍보지 번역 ·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학습 	

A 가족센터 통번역 자조모임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통번역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번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참여 인원수는 10명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조모임 활동은 COVID-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1회 가족센터 홍보지를 모국어

로 번역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교재를 학습한 후 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중 하나인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정보의 다양한 자원과 관련되어 자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하며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한다. 특히 사례연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관찰, 인터뷰, 시청각 자료, 서류,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김희주 외, 2013; Creswell, 1998). 또한, 사례연구는 사례가 경험한 현상의 중요한 속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생성되는 경험의 개인적·주관적인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병영 외, 2011). 사례연구의 핵심은 그 사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례 속에서의 관계 및 쟁점들을 파악하며,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하는 것이다(오보람·황경란, 2014; Stake, 1995).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약 10개의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방법에 따라 추출되었는데, 이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연웅, 2012).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중에서도 기준 표본추출전략으로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Creswell, 2012).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²⁾, A 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통번역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 가족센터장에 연구 동의를 요청하였고, 센터장으로부터 연구참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주여성 5명을 소개받았다. 이를 통해 표집된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2>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이주 연도	출신 국가	현재 국적	학력	직업 (부업)	자조모임 참여년도
A	45살	2005년	중국	중국 (F-5)	대졸	중국어 강사	2017년 (5년)
B	40살	2009년	중국	중국 (F-5)	대졸	전업 주부 (통번역사)	2017년 (5년)
C	28살	2013년	베트남	한국	고졸	전업 주부 (주방보조)	2019년 (3년)
D	29살	2015년	베트남	한국	대학 중퇴	전업 주부 (통번역사)	2017년 (5년)
E	31살	2016년	베트남	한국	대졸	전업 주부	2021년 (1년)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총 5명으로 베트남 3명, 중국 2명이다. 연령대는 20대 2명, 30대 1명, 40대 2명으로 평균연령은 34.6세이다. 본국에서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2명, 대졸 3명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3명이며, 영주권 비자(F-5)는 2명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10년 이상 2명이며, 직업은 통번역 프리랜서 2명, 주방 보조 1명, 전업 주부 1명이다.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기간은 5년 이상 3명, 1년 이상 3년 이하 1명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한 후 심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60,072명(35.6%), 베트남 44,058명(26.1%), 일본 14,595명(8.7%), 필리핀 12,002명(7.1%), 기타 37,867명(2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국·베트남 국적이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1).

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1인당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당 90분~120분 소요되었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고급 수준(TOPIK 4-6급)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구 종료 후 녹취록은 폐기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전, 기본 인적사항 및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서면 면담을 통해 받았으며, 심층면담은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 동기, 참여경험, 참여 후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의 큰 주제 안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맥락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참여 경험을 자유롭게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녹취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을 필사하였다. 면담과정에서 관찰된 내용과 느낀 점을 연구노트에 작성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한 연구자가 면담한 당일 전사록을 작성하였다. 1, 2차 심층면담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화나 문자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의 집 근처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나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면담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동시에 진행되었고, 자료의 분석 과정은 Braun과 Clarke(2006)의 중심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심주제 분석 방법은 귀납적 논리를 기반으로 심층면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주제를 유형별·위계별로 범주화하여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 해석하는 방법이다(김기화 외, 2018). 먼저,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경험과 관련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 작업을 했다. 연구참여자가 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사전면담 약 10매, 전사자료 약 199매이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심층면담 당일에 연구

자가 직접 전사록을 작성하여 자료의 오류를 줄였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범주를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3명 및 고등교육 전문가 1명과 범주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범주를 수정·보완하여 재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통번역 자조모임의 참여경험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먼저, 범주 1은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험의 부족’과 ‘취약한 한국어 능력’의 이유로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2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가족 간의 친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주 3은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통역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꼈으며,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3>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경험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경험의 부족	· 육아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후회됨 · 젊은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함
	취약한 한국어 능력	·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함 ·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임

- 3) 사회참여란 한 인간이 개인의 삶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배경희, 2013; Palmore, 1981).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정보를 공유함 ·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됨 · 자녀 교육 및 가족 관계 상담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됨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남편이 응원해 줌 · 통번역 활동 참여경험이 남편과 자녀에게 자랑이 됨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 교재 및 응시료 지원으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됨 · 타국적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통역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 자원봉사는 자조모임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임 ·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낌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IK 5-6급 취득, 검정고시, 대학 진학 등 자기개발 목표 설정 · 무역 관련 통번역사, 간호조무사, 자녀 유학 등 미래 계획 수립

1)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1) 경험의 부족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출산 및 양육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장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조모임에도 참여하게 된다.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에서는 1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술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조모임은 통번역 자조모임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궁극적 목표는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함이지만 이주 초기에 다양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참여 동기 중 하나이다.

자조모임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경험 쌓고 싶어요. 저 진짜 후회했어요. 아기 낳고 오랫동안 센터도 다니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참여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 벌써 30살이 됐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못 하고 그거 진짜

속상했어요. (그래서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좋은 일 찾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그리고 꼭 좋은 일 아니더라도 그냥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E

젊은 나이에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물론 아기도 봐야 하지만, 도전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잖아요. -연구참여자 D

(2) 취약한 한국어 능력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직종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직업 중 하나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해 전문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통번역 어휘를 배우고자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다. 그리고 통번역 자조모임에서는 TOPIK 교재 및 응시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삶에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또,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돼서(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말 중에 모르는 거 사실 진짜 많아요. 외래어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계속 공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한국어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목적으로 참석했어요.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A

토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았어요. 책도 무료로 받고 토픽 시험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시험도 볼 수 있게끔 기회도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만나야 한국말도 늘죠. 그래서 요즘은 **(타국적) 사람들 많이 사귀어요. -연구참여자 C

2)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1) 다양한 정보 공유

통번역 자조모임은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조모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TOPIK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통번역 활동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경험이 없는 회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여기(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다 지원해줘서 진짜 좋았어요.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서로 도와줘요. 예를 들면 한식 요리 같은 거 아니면 통번역양성 과정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못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자조모임 하다가 이력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점이 들어가면 좀 들어도 되는데, 근데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그렇게 서로 알려줘요. -연구참여자 D

여러 명 같이 있어서 필요한 정보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통번역) 경험이 없는데 경험한 선배들이 저한테 좋은 정보나 자기 참여경험을 이야기 해주면 저는 그거 보고 배워요. 공부해서 저한테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임에서 회원들 간의 사적 대화를 통해 시대 갈등, 육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삶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 놓는다.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자조모임에 친구 한 명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가 항상 저랑 통화해요. 그 친구 명절 때 집에서 제사해야 돼서 자기 집은 해마다 집에서 제사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위로 해주고, 진짜 설 전날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연구참여자 A

한국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많이 물어보고 또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뭐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애들 무슨 학습지 시키는지 얘기를 많이 해요. (회원 중에) 자기 딸 어느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우리도 관심 있어요. 그거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학비 얼마 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물어보고, 여러 명 같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어요. (하하) 우정. 그런 거니까. -연구참여자 B

(3)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며,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는다. 배우자 또한,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는 아내를 보며 외부 활동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 이처럼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휴, 진짜 우리 아들한테도 (자조모임 참여하는 게) 좋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도 열심히 배우니까, 나도 열심히 배워야지요." (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B

일단 남편이 저를 인정하고 지지해줬어요.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주고 어디 가서 자랑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밖에 나가서도 마누라 자랑 많이 하고요. 응원해 줘요. -연구참여자 A

3)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

(1)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한국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선생님 및 타국가 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을 하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자조모임하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솔직히 자신없었어요. 그런데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한국 선생님이란 이야기하거나 다른 나라 친구한테 이야기 하면서 한국 사람이란 소통하는 거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어) 모자란 거 다 아니까. 저 옛날에는 한국말 했을 때 상대방이 “어?”(못알아듣는 말투)하면 그냥 말 안했어요. 옛날(자조모임 참여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어요(웃음). -연구참여자 B

자조모임 참여하기 전에 계속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요. 계속 집에 있어요. 아니면 아기가 어디 데려가도 자신감 없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든지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그런 것도 못 했어요. 또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전화받으면 제 말 못 알아들을까 일부러 피한 거예요. (자조모임 참여하면서) 몇 번을 직접 (한국어로 통화)해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 받는 거 무섭지 않고, 떨리는 거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참여하고 나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C

(2)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통역 자원봉사 활동이 자조모임 활동에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으로 꼽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상담 통역하잖아요. 그 시기에는 갈등도 많이 있고 불만도 많이 있는데 상담하고 나서는 안정되니까 좋고. 그리고 나면 (통역)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통역을 하고 나면) 나도 쓸 만한(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C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냥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면서 긍정적인 말 같은 걸 해주는데 (자조모임) 활동하면서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3)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설정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지원사의 현실적인 문제(일자리 부족, 통번역 능력 부족)로 통번역지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대학 진학, 간호조무사 등)를 꿈꾸고 있다. 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직 외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꼈었지만,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되었고, 각자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내에서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국적이 있어서 일반 대학에 다니려면 수능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저는 사이버 대학교에 다니려고 해요. 수능은 상관없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명의 사람 앞에서 말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도 되고 싶고 지식 있는 여자도 되고 싶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D

통번역사에 되려면 이것 저것 많이 따지니까 또 한국말만 잘하는 거 아니고 베트남어도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약해서 안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점정고시) 합격 하면 그냥 간호조무사 배우려고요.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겠다 생각해요(웃음). 최종 목표가 집사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C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성인학습 측면에서 탐색함으로써 통번역 관련 모임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은 총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세 가지 상위 범주는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임신·

출산·육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젊은 시절을 육아로만 보낸 아쉬움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통번역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이 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번역 활동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고,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통번역 자조모임의 번역 활동은 전문가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번역 역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주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역 봉사활동이 필요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조모임 활동 기간에 비해 통역 경험 부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의 여러 통로를 통해 통번역 경험을 자발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통번역 지원사 양성과정을 통해 수료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번역 자조모임의 비체계적인 운영 및 불투명한 일자리 전망은 통번역 자조모임 회원들의 학습 동기를 감소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타국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심감이 생겼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이 더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을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나갔다. 그리고 통번역 자조모임의 활동은 더 다양한 경험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으며, 본국에 비해 낮아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써 자조모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서술한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의 기능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통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통번역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통번역 자조모임에서는 발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음인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전나영, 2015) 의사소통이 중요한 통번역 자조모임에서는 발음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취업 정보망 활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취업 사이트를 검색하고 원하는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능력을 한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지원사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사업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움과 동시에 통번역지원사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번역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SNS를 통해 여러 국가의 언어로 제공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사업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통번역 대학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차원의 전문적 통번역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1개의 대학기관에서 통번역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⁴⁾ 통번역 관련 교육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

4) 현재 국내 통번역 대학원은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6개(고려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비수도권 지역 5개(계명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 한동대학교) 총 11개의 기관

육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번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미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있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초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번역 교육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넷째, 세 번째 제안을 바탕으로 생성된 전문적 인력을 모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2.8%,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22.7%를 차지하였다(윤자호, 2022),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고강도·저임금이라는 노동 현실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공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문직을 꿈꾸며, ‘통번역지원사 수수료증’ 취득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전문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⁶⁾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각 지방 정부와 연계하여 실행한다면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통번역 관련 모임 및 사업 등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 관련 모임 방향이나 사업 형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자조모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서 운영되고 있다.

- 5)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윤자호, 2022).
- 6)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 참고문헌

1. 자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자조모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2020.

윤자호,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2022.

통계청·법무부,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20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배치현황」, 2021.

한국교육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2010.

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2020.

e-나라지표·법무부, 「결혼이민자 현황」, 2021.

2. 단행본

기영화·홍성화·조윤정, 『성인학습론』, 아카데미프레스, 2009.

3. 논문

강은홍·김춘숙, 「자조모임을 통한 고혈압 환자의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의료경영학연구』 11권 1호,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17, pp.23-35.

김가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학습 경험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38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1, pp.119-143.

김경희·허영숙,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pp.75-110.

김병영·정소희·김영호,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대상관계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5권 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1, pp.95-126.

김태린, 「결혼이민자의 직업문식성 신장 교육 연구-통번역 지원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제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pp.201-222.

- 김희주 · 주경희 · 우수명, 「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코피노 어린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pp.135-165.
- 박상욱 · 함은혜 · 이은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pp.435-454.
- 박신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 pp.40-53.
- 박신영, 「사회적 자본으로서 취업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조그룹이 가지는 의미 탐색-통번역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6, pp.111-138.
- 백은숙 · 한상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pp.179-199.
- 오보람 · 황경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복지패널 질적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4, pp.5-24.
- 서홍란 · 배영미 · 유영립,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 학습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3호,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6, pp.33-63.
- 신윤경, 「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수업 내용 구성 방안-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양성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8, pp.99-218.
- 심인삼,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인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7, pp.77-97.
- 원순옥 · 이화숙,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민족연구』 62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5, pp.93-119.
- 유연웅,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2호,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2, pp.5-30.
- 이지은 · 장애리 · 최문선 · 허지운, 「한국 내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현황에 대한 소고. 통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4, pp.167-191.
- 임선우 · 윤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p.639-659.
- 전나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새국어생활』 제25권 제1호, 국립국어

연구원, 2015, pp.29-44.

정성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최항석, 「성공적인 성인학습의 전략적 습관」, 『Andragogy Today』 제4권 제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 pp.81-96.

논문접수일	2022년 04월 30일
심사완료일	2022년 0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16일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arried Migrant Women in Self-help Groups for Translation

Kim, Youngsoon · Mun, Huijin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elf-help group for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in terms of adult learning.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by linking the life and learning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self-help group and interpretation service project. To this end, five Chinese and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ere interviewed in-depth to collect data and analyze the contents. As a result, the meaning of marriage migrant women's participation in self-help meetings for interpretation was found to be 'reflection on life after migration', 'organizational network formation', and 'change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elf-help group for interpretation helps marriage migrant women settle and live stably in Korean society as a bridge between marriage migrant women and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omestic marriage migrant women recognized their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that changed after moving to Korea and made great efforts to overcome it. In order to support these efforts,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in projects related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s required.

Keyword a married immigrant woman, Self-help group for transl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Adult learning, a case study